

현대·기아차 지난해 판매 5위 수성 했지만...

수출부진·파업 등 영향 전년보다 1.7% 감소

글로벌 위기 속 올 역대 최다 825만대 목표

현대·기아자동차가 지난해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차를 팔며 순위 수성에 성공했지만 앞선 업체와의 격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각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현대·기아차의 연간 판매 실적은 폭스바겐, 토요타자동차, GM, 르노닛산 얼라이언스에 이어 전년과 같은 5위를 기록했다. 폭스바겐이 전 세계에서 1031만2400대를 판매해 새로 1위에 올랐다.

폭스바겐은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준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글로벌 판매량이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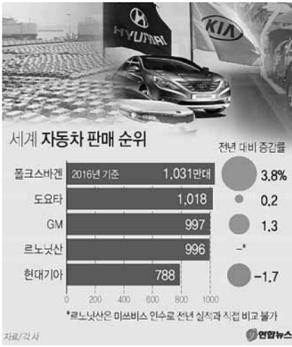
특히 중국에서 전년 대비 12.2% 증가한 398만2200대를 판매했다. 중국은 폭스바겐 전체 판매의 38.6%를 차지했다.

토요타는 2012년부터 4년간 글로벌 판매량 1위를 기록했지만, 작년에는 주력 시장 미국에서 판매가 감소하면서 폭스바겐에 역전을 허용했다.

토요타는 토요타, 다이하쓰, 히노(日野) 브랜드 등을 포함한 글로벌 판매량이 전년 대비 0.2% 증가한 1017만5000대를 기록했다.

GM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996만5238대를 판매, 3위를 유지했다. GM 역시 폭스바겐과 마찬가지로 전체 판매의 3분의1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판매가 7.1% 증가하며 성장을 견인했다.

르노닛산 얼라이언스가 996만1347대로 GM을 바짝 추격했다. 르노 판매가 전년 대비 13.3%, 닛산이 2.5% 증가했다. 르노 닛산은 닛산이 지난해 5월 연비조작 파문



으로 위기에 처한 미쓰비시 주식 34%를 인수, 미쓰비시 판매를 얼라이언스 실적으로 편입하면서 5위인 현대·기아차와 거리가 확 벌어졌다.

반면 현대·기아차는 판매가 줄었다. 전년 대비 1.7% 감소한 총 787만6000대를

판매했다.

국내 점유율 하락과 수출 부진, 파업 등의 이유로 목표 달성은 고사하고 3년 만에 처음으로 판매가 800만대 밑으로 떨어졌다. 현대·기아차가 고급차 시장에 집중할 것도 감소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올해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경쟁 심화 영향으로 자동차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차는 올해는 역대 최대치인 825만대를 판매 목표로 잡았다. 단, 최근 몇 년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영업이익률 탓에 무리한 판매 확대 대신 수익성 개선에 집중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현대·기아차가 최근 몇 년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판매 확대보다는 수익성 개선 등 ‘내실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1986년식 현대차 그랜저.

〈현대차 제공〉

1980년대 추억의 차 ‘각 그랜저’ 그림자

‘다시 구매하고 싶은 차’ 1위

1980년대에 큰 인기를 끈 이른바 ‘각(角) 그랜저’가 다시 구매하고 싶은 차 1위에 올랐다.

SK엔카가 최근 출시된 지 20년 이상 된 국산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다시 출시된다면 구매하고 싶은 차’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950명 가운데 20.2%가 1986년식 현대차 그랜저를 지지했다.

1986년식 그랜저는 직선이 살아있는 외관 디자인 때문에 ‘각 그랜저’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모델이다. 출시 당시 고급 차량의 대표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성공한 아버지의 차’, ‘부의 상징’으로 통했다. 현재 중고차 시

세는 주행거리와 관리상태 등에 따라 230만원부터 999만원까지 형성됐다.

2위는 1993년식 쌍용차 ‘무쏘’(16.8%)가 차지했다. 이들 차량은 박스형 디자인이 유행하던 당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달리 곡선을 가미해 투박하지 않으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갖고 있다.

1990년식 한국지엠 ‘에스페로’는 넓은 실내·트렁크 공간과 함께 날렵한 측면 디자인이 돋보였다는 이유로 3위(14.0%)에 올랐다. 이어 쌍용자동차의 ‘코란도 웨미리’ 1988년식이 11.9%의 지지를 얻어 4위를 차지했다. 현대자동차의 ‘포니’ 1985년식은 5위(11.2%)를 기록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기아차 ‘시카고 오토쇼’ 참가

북미 최대 규모 자동차 전시회 ‘시카고 오토쇼’가 지난 11일(현지시간) 개막했다. 기아차는 지난달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공개한 고급 스포츠 세단 ‘스팅어’와 소형 SUV ‘니로’를 비롯한 다양한 제품을 전시했으며, 바퀴 대신 세모 모양의 트랙을 장착한 ‘쏘렌토 스키 콘셉트’로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

지난해 하이브리드·전기차 상표출원 148건 ... 전년보다 48% 늘어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차세대 환경 자동차의 대표주자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상표출원이 크게 늘었다.

13일 특허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상표출원 건수는 148건으로 2015년보다 48%나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하이브리드와 전기자동차 관련 상표 다 출원 기업 1위는 60건을 출원한 현대자동차, 2위는 12건을 출원한 한국지엠이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자동차의 누적 상표 등록 건수는 현대자동차가 64건, 기아자동차가 18건으로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국내의외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강화돼 친환경 자동차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테슬라 자동차가 촉발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에 따라 기술이 발달하면서 하이브리드와 전기자동차 상표출원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에서 하이브리드와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혜택을 주면서 기업과 일반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돼 상표출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최규안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차세대 친환경 관련 기술과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돼 매우 긍정적”이라며 “하이브리드와 전기자동차가 상용화돼 출시되기 전에 상표를 출원해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벤츠 반자율주행기술 탑재 ‘더 뉴 E300’ 출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주행 보조 시스템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플러스’를 기본 사양으로 적용한 ‘더 뉴 E300 인텔리전트 드라이브’와 사륜구동 ‘더 뉴 E300 4매트 인텔리전트 드라이브’를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플러스는 앞차와의 거리를 자동으로 유지하고 교통 상황과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에 따라 차량을 조정하는 반자율 주행 장치 ‘드라이빙 파일럿’을 포함했다.

드라이빙 파일럿은 최대 시속 210km 내에서 차선을 따라 최대 60초까지 운전자 조작 없이 주행이 가능하다. 반자율 주행 상태로 60초가 지나면 시각·청각 경고를 울리며 운전자가 다시 스티어링 휠을 잡으면 다시 60초 동안 반자율 주행 모드로 들어간다. 완전한 자율 주행은 아니지만 60초 간격으로만 스티어링 휠을 잡으면 되는 것이다.

운전자가 경고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주의력을 상실했거나 차량을 운전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 드라이빙 파일럿이 스스로 차를 안전하게 정지시키고 브레이크 등을 점등한다.

드라이빙 파일럿은 완전 자율 주행은 가능하지 않으며 신호등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호등이 없는 고속도로 등 특정 환경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벤츠는 설명했다.

패키지에는 드라이빙 파일럿 외에 차선 이탈 방지와 사각지대 감지, 브레이크 보조 등 여러 안전 기능이 들어있다.

가격은 ‘E300 인텔리전트 드라이브’ 7670만원, ‘E300 4매트 인텔리전트 드라이브’ 8000만원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첨단 상가빌딩 매매 8층

(첨단삼성전자 정문 앞) 메가박스, 정부합동청사 1분

■ 본사건물/지사건물/직업훈련학교/기숙사 물류센터 적합 (고속도로 진입 5분)

■ 토지 500평
건물 904평
주차 60대 완비

■ 1층 상가 120평
2층 ~ 7층 (최고급 오피스 룸 56개)
8층 (최고급 스카이라운지)

■ 시세가 60억
■ 매 가 38억
(대출 27억 / 보 6억 월 3,000만)

■ 문의 010-7384-7800 / 010-6670-9800

첨단지구 사무실임대

◆ 평수 15평
◆ 평수 12평

주차 60대 완비
즉시 입주 가능
투룸 가능

전자제품(일체무료)

010-7384-7800
010-6670-9800

전남 영광군

전원주택 매매

광주에서 40분 !!

토지 151평
건물 42평 (준공 2년)

◆ 매가 1억 1천만 (용 2천)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45평) 천변로 전망 최고
보1천 월 60만 (리모델링 완비)
매가 1억4천만 (용 5천)

■ 상무지구 주거용/사무실 매매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업
상무지구 중심가 / 수림오피스텔
매가 7천200만

■ 서구 쌍촌동 원룸 (오피스텔형)
2층 (11평) 운전회 1번출구에서 3분거리
보증금 200만 월 30만 (용 1천)
매가 3천 5백만 (전세값으로 내집 마련)

☎ 062-511-7800
010-6832-9700

법률경매 (주) 대신경매

경매 추천 물건



■ 서구 매월동 (장례식장)
토 2,911평, 건 1,362평
서광주역 1분 / 행정례식장 운영
연매출 약 80억 !!
▶감평가 116억 → 최저가 116억



■ 나주 송월동 (복합 상가건물)
토 8,474평, 건 2,563평
나주혁신도시 5분!!
수영장, 예식장, 사무나, 찜질방, 헬스장
나주 최고 복합상가
▶감평가 160억 → 최저가 46억



■ 북구 중흥동 (숙박시설)
토 91평, 건 340평
광주역 1분 (코너자리)
총 료 30개 (달방수익 1천만 예상)
▶감평가 9억5천 → 최저가 5억3천



■ 남구 월산동 (2층 상가 사무실)
토 21평, 건 96평
농성역 5분 / 6차선도로 접
넓은 평수 / 저렴한 가격
▶감평가 4억3천 → 최저가 1억9천

직원 모집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
가족처럼 일하실 분 모집니다.
(공인중개사 환영)

010-7384-7800 062-382-5500